

2019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致 辭

2019. 1. 2. (水) 09:45 ~ 09:52
KRX 스퀘어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 종 구

※ 본원고는 실제 발언 내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1. 인사 말씀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위원장 입니다.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국거래소를 비롯한 자본시장 유관기관 임직원 여러분,
금융투자업계 종사자 여러분과 상장법인 관계자 여러분,

증권·파생상품 시장의 문을 여는 첫날에
우리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애써오신 여러분들과
희망찬 시작을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60년 전 기해년(己亥年)이었던 **1959년**은
우리 자본시장 발전의 주춧돌을 놓은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1959년 2월에는 정부 소유 주식들을 증권시장을 통해 매각
하기로 하고, 7월에는 증권거래소를 주식회사로 전환하기로
하는 등, “정부 중심”의 증권시장을 “시장 중심”으로
대전환하는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진 해였습니다.

이러한 반석 위에서 우리 자본시장은 시가총액 **1,636조원**의
세계적인 시장(세계 14위)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황금돼지 해를 다시 맞이하는 올해 우리 자본시장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의미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2. 2018년 자본시장 회고

최근 영국 **Financial Times**는 2018년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요 사건과 화제어를 정리해 발표하였습니다.

연초에는 **Melt-up**(증시 과열)과 **Dollar rebound**(달러 반등)를, 하반기에는 **Red October**(붉은 10월)와 **December mayhem**(12월의 대혼란)을 시장을 관통하는 화제어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2018년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다사다난했던 한 해로 기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본시장에게도 지난 2018년은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연초 우리증시는 글로벌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출발하였습니다.

* (코스피) '18.1.29일(장중), 2,607.10p / (코스닥) '18.1.30일(장중), 932.01p

이어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등 긍정적인 요인들이 시장의 견조한 성장세를 견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美中 무역분쟁,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유동성 축소 우려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내 경제지표 부진이 더해져 코스피가 2,000선을 하회*하기도 하였습니다.

* (코스피) '18.10.30일(장중), 1,985.95p

한편, 착오배당 등 증권회사 전산 사고, 무차입 공매도에 따른 결제 불이행 문제 등으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힘든 시간이었지만, 자본시장 인프라를 재점검하고 시장에 대한 신뢰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3. 2019년 자본시장 정책방향

내빈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기대와 희망은 큼니다만, 올해 대내외 경제·금융 환경은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세계적으로 경기침체(Recession)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미중 무역전쟁, 미국 기준금리 인상 기조 등 대외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내적으로도 투자 부진은 완화되겠지만, 소비와 수출 증가세는 둔화되어, 올해 경제성장율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2.6%내지 2.7%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증시에 대한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올해 초에는 작년에 이어 부진한 성과를 이어가다가 하반기 들어 점차 안정세를 회복할 것이라는 예상인 시장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렇듯 대내외 여건이 만만치 않은 만큼, 금융위원회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자본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올해 금융위원회는 ①안정과 ②혁신, 그리고 ③신뢰라는 세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자본시장 정책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① 먼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시장불안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시장이 불안하다면 어떠한 제도개선도 그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투자자들이 자본시장을 믿고
투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대내외 여건 변화와 이상 징후를 철저히 점검하고,
단계별 **Contingency Plan**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위기발생시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조치해 나감으로써
시장불안을 초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② 둘째,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자본시장이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고,
금융투자산업도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도기를 맞은 한국경제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혁신기업과 지식산업의 육성, 그리고 이를 위해 과감하게
투자할 금융, 그중에서도 모험자본의 육성이 필수적입니다.

미래 성장가치에 대한 통찰력을 기반으로 투자할 기업을
선정하는 것은 공공부문보다는 민간 주도로,
보수적인 대출보다는 모험적인 투자 위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액공모·크라우드펀딩 활성화, 투자전문회사(BDC)제도 도입,
사모펀드 개편방안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에서
보다 쉽게 성장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코스닥시장이 역동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진입·상장유지 및 퇴출 요건을 정비하는 한편,
코넥스시장은 중소기업이 상장하고 싶고,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싶은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재설계하겠습니다.

금융투자산업의 자체적인 혁신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입니다.

특히, 올해는 자본시장법이 시행된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의 성과와 한계를 되짚어보고,
우리 금융투자산업이 퀀텀점프할 수 있도록
규제 전반을 재설계하겠습니다.

③ 마지막으로,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은 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양보할 수 없는 대전제입니다.

올해는 회계제도 개혁법과 기업지배구조공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첫 해입니다.

이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회계 문제와 지배구조 투명성이 진일보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조기에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시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을 추진하고,
법집행을 보다 엄정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행위가 자본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5. 마무리 말씀

내빈 여러분!

올해 우리 경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모두가 어렵다고 할 때
우리는 더 힘을 내어 그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해왔습니다.

이는 우리 경제의 튼튼한 기초체력과 잠재력, 그리고 스스로를
믿었던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본시장도 작년 한 해의 어려움을 모두 극복하고
올해에는 투자자들에게는 신뢰받고 청년과 기업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든든한 자본시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올해에는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는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오늘 개장식을 준비하느라 애쓰신 관계자분들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